

사회

광양제철 고철 야적장 피해 극심

금호·중마동 8만여 주민들 쇳가루 날려 고통 호소

주택가 1km거리 불과... 비산먼지에 아파트 창문도 못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제강원료용 고철 12만t을 비산먼지 방지 시설도 없이 제철소 내에 야적해 사용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고철야적장에는 비가림 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우기시 빗물을 타고 고철에서 흘러나온 불순물이 그대로 광양항으로 유입돼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9월 광양제철에 따르면 제철소는 하이밀공장과 후관공장의 제강원료로 사용하는 12만t의 고철을 이들 공장 인근 2곳에 야적해 사용하고 있

다. 광양제철 후관공장(적치면적 5만 4868㎡·7만t)과 하이밀공장(9만2000㎡·5만t)에 야적된 고철 관리가 부실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환경성 검토나 관계 당국의 단속도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적장과 직선거리 1km 내외에 위치한 금호동과 중마동에 거주하는 8만여명의 주민들은 후관공장 고철 작업장 발생된 미세한 먼지와 쇳가루, 소음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제대로 열기 어렵고 매일 청소하지만 시커먼

먼지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 조모(61·중마동)씨는 “광양제철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제철소 내에서는 각종 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일 광양시 공무원이 현장점검한 결과, 야적장의 빗물 배수 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평소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양제철은 평균 12만t의 고철을 상시 비축하면서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야적장 담장 주변에 나무

를 심어 숨겨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후관공장과 광양제철소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이순신대교가 내년 5월 개통되면 불쌍사나운 야적장이 그대로 노출돼 광양시의 제철소의 이미지 추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철소 내에 방대한 분량의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 환경보건그룹 관계자는 “향후(고철관리를 위한)투자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하늘에서 내려다 본 광양제철소의 12만t 분량 고철 야적장(점선 부분). 고철 야적장이 그대로 노출돼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술 때문에...” 이젠 안 통한다

전남경찰, ‘주폭’ 39명 적발 전원 구속

술을 마시고 경찰관이나 이웃에 행패를 부리는 상습 주취 폭력범 일명 ‘주폭’(酒暴)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

경찰이 주폭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범죄 행위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이른바 주폭 39명을 적발, 전원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7명은 과출소 등 관공서에 찾아가 공무 집행 방해한 혐의로, 12명은 주민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40대 남성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술이 죄다”라는 우리 사회의 주취자들에게 대한 연민과 관용이 오히려 습관성 주폭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취 폭력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 5월 이후 주폭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98.7%에 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찰서별로 주폭 전담반을 둔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등 불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손해배상)을 병행해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괴롭히는 주폭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피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구타 해병 ‘빨간 명찰’ 떼었다

해병 2사단 등 14명 첫 회수

지난달 초 총기사건이 있었던 해병 2사단에서 구타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해 병사들이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해병대가 가혹행위를 한 병사의 군복에서 해병대원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떼기로 방침을 정한 이래 첫 사례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해병 2사단에서 지난달 31일까지 부대정밀 진단을 벌인 결과 A상병이 후임 병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돼 빨간 명찰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A상병은 후임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만스런 표정을 짓자 화끈하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상병과 후임병은 한 기수 차이다.

A상병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후에는 빨간 명찰이 없는 군복을 입고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후 개선 여부에 따라 다시 빨간 명찰을 달 수 있다.

해병대 사령부는 8월 1일부터 병영문화 혁신에 관한 일반명령을 하달해 시행 중이며 앞서 지난 달 22일 해병 2사단은 특별명령을 예하부대에 내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A상병을 포함해 명령 위반자 총 14명을 적발해 빨간 명찰을 회수했다.

명령위반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해병대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빨간 명찰을 떼인 채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 이후 새 부대에서 지내며 적응·재교육을 통해 다시 명찰수여식을 하게 된다.

/연남뉴스

새벽에 장덕동서 부녀자 납치 미수

새벽시간대 괴한이 부녀자를 납치하려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대형마트 앞 길거리에서 3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이모(여·40)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려고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퇴근한 뒤 집에 가기 위해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괴한은 이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한 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175cm 가량의 키에 검은색 티셔츠 차림을 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회비 2억 횡령 전 전남교총회장 구속

보성경찰, 교육지원청장 시절 공사 특혜 혐의도 조사

보성경찰청은 9일 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 회비를 횡령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로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 전 사무총장 정모(42)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 교총회장

을 연임하면서 광주에 있는 현장학습 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4억 8000만원 남용 및 업무상 횡령)로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 전 사무총장 정모(42)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김 교장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도 교육청 지원금만 공사비에 사용하고 교총 회비에서 부담

해야 할 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 교장의 범죄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교장이 지난 2008년 전남 모 교육지원청장 재직 당시 학교 시설보수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민노당 등 가입 현직검사 첫 기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최근 수도권 한 검사는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다 적발돼자 사표를 내 입건유에 조처됐다.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함바비리’ 유상봉 2년 6월 구형

검찰 “범행 자백 정상 고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9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가 중하지만 유씨가 처벌을 각오하고 고위공직자와 경찰 등의 함바 비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행을 자백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많은 고위공직자에게 큰 아픔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나도 어렵게 수주한 것이 무산, 취소돼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수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역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친구 ‘대포차’ 출처간 뺨뺨남 침찰행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일명 ‘대포차’를 몰래 훔쳐 간 뺨뺨남 20대가 경찰서 행.

○9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 주차해 있던 친구 홍모(20)씨의 오펜타 승용차 1대(200만원 상당)를 훔쳐 타고 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평소 홍씨에게 자주 차량을 빌려 탔던 김씨는 미리 복제해 둔 열쇠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의 차량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차였던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